



강호들의 텀바구니에서 메달을 노리는 여자배구와 여자핸드볼은 첫 경기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여자배구의 간판스타 김연경(왼쪽 사진 왼쪽)이 2일(한국시간) 이탈리아와의 평가전 도중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여자핸드볼대표팀도 현지에서 막바지 담금질에 한창이다(오른쪽 사진).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 | 뉴시스



힘에는 힘...일본, 강한 서브로 잡아라

여자배구, 조별리그 1차전 비책

이정철 감독 “서브에 힘 실어 때려야”
日도 김연경·김희진 점프 서브 경계

여자배구는 김연경(28·터키 페네르바체)이라는 확실한 스타를 보유하고도 최근 국제대회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다. 특히 2008베이징올림픽 예선 탈락의 참사를 겪는 바람에 위상이 크게 떨어졌다. 그러나 2012런던올림픽에서 4위를 차지하며 큰 관심을 받는 종목으로 떠올랐다. 여자배구의 인기가 급상승한 시점이기도 하다.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선 내심 1976몬트리올올림픽(동메달) 이후 40년만의 메달 획득까지 넘보고 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숙적 일본을 비롯해 러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카메룬과 A조에 속했다. 8강 토너먼트에

일시	상대국(세계랭킹)
6일 오후 9시30분	일본(5위)
9일 오전 8시30분	러시아(4위)
11일 오전 8시30분	아르헨티나(12위)
13일 오전 10시35분	브라질(2위)
14일 오후 11시35분	카메룬(28위)

※ 한국시간 기준, 한국은 세계랭킹 9위

오르기 위한 마지노선은 조별리그 4위. 그러나 여자배구대표팀 이정철 감독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브라질과 러시아가 강팀이다”면서도 “일본, 아르헨티나, 카메룬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상대다. 조별에선 성적이 좋아야 8강 토너먼트 대진이 유리해지는 만큼 최대한 많이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려면 6일 오후 9시30분(한국시간) 열릴 일본과의 첫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한국은 일본과의 상대전적에서 49승 86패로 열세다. 그러나 5월 17일 도쿄

에서 벌어진 리우올림픽 세계예선에서 세트스코어 3-1 승리를 거두며 자신감을 찾았다. 김연경(25득점)뿐 아니라 김희진(18득점), 양효진(10득점) 등 다양한 공격 루트가 통한 부분이 큰 수확이었다. 박정아와 이재영도 김연경의 공격 부담을 덜어줄 카드다.

당시 한국은 서브에서 9-3으로 일본을 압도했다. 이는 일본을 깨트릴 또 다른 해법이다. 이 감독도 “역시 관건은 서브다. 공 하나를 때리더라도 힘을 실어서 때려야 힘과 높이가 좋은 상대를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국가대표를 지낸 오야마 카나도 4일 일본 스포나비에 게재한 칼럼에서 “김연경과 김희진의 점프 서브는 공의 변화가 심하다. 일본에서 그들처럼 서브를 구사하는 선수가 없다”며 “이를 컨트롤하지 않고 손에 대기만 하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공이 튕다. 러시아에 가담하는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의 강점은 특유의 조직력을 앞세운 끈끈한 배구다. KBSN스포츠 이숙자 해설위원은 “일본은 좀처럼 실수를 하지 않는 팀”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최고의 스타 기무라 사오리가 손가락 부상으로 출장 여부가 불투명한 것은 화재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일본의 수비력은 여전히 세계 최정상급으로 꼽힌다. 5월 세계예선에서도 레프트 이시가 유키, 리베로 사토 아리사의 몸을 사리지 않는 수비는 큰 주목을 받았다. 라이트 나가오카 미유는 전·후위를 가리지 않는 공격이 일품이다. 한국을 상대로 21득점을 기록했던 경계대상 1호다.

한국은 일본과 상대한 뒤 9일 러시아, 11일 아르헨티나(이상 오전 8시30분), 13일 브라질(오전 10시35분), 14일 카메룬(오후 11시35분)과 차례로 만난다. 첫판을 잡으면 좋은 분위기 속에 강호 러시아전을 준비할 수 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우생순’ 어게인, 러시아전에 달렸다

여자핸드볼, 러와 조별리그 1차전
첫 판 승리, 기세·체력 안배 유리

여자핸드볼은 올림픽마다 국민들에게 기쁨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안겼다. 1984년 LA올림픽을 시작으로 8회 연속 4강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 1988년 서울과 1992년 바르셀로나에서 잇달아 정상에 오른 것을 포함해 금 2, 은 3, 동 1개를 획득했다.

그러나 갈수록 세계 핸드볼에서 유럽이 득세하고 있다. 비단 경기력뿐 아니라 심판 판정에서도 한국은 불리하다. 게다가 이번에는 개최국 브라질이 떠오르는 등 남미도 복병이다. 그 어느 때보다 메달 전선이 험난하지만, ‘우생순(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신화를 연출한 임영철 감독(2004아테네올림픽 은·2008베이징올림픽 동)이 전임감독으로서 대표팀에 컴백해 핸드볼 중흥을 위한 투지를 불태우고 있다. 남자핸드볼이 리우행 티켓을 놓친 상황이라 여계가 더 무겁다.

일단 호재는 죽음의 조인 A조를 피한 것이다. 노르웨이(세계랭킹 4위), 루마니아(5위), 스페인(15위), 브라질(16위), 앙골라(18위), 몬테네그로(27위)가 포진된 A조에 들어갔으면 8강 진출을 장담하기 어려웠다. 한국이 속한 B조는 상대적으로 해볼 만한데 꼭 2위 안에 들어야 한다. 조 4위까지 8강에 오르는데 1위로 가면 A조 4위, 2위로 가면 A조 3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의 1차 목표인 4강 진출의 최대 고비

일시	상대국(세계랭킹)
7일 오전 2시40분	러시아(2위)
8일 오후 9시30분	스웨덴(19위)
11일 오전 7시50분	네덜란드(14위)
13일 오전 9시50분	프랑스(9위)
15일 오전 9시50분	아르헨티나(29위)

※ 한국시간 기준, 한국은 세계랭킹 10위

는 7일 오전 2시40분(한국시간) 벌어질 첫 경기 상대 러시아다.

여자대표팀은 국내에서 남자청소년 대표팀과 3차례 평가전을 치렀다. 이때 임 감독은 청소년대표팀 장인의 감독에게 “러시아처럼 해달라”고 부탁했다. 장 감독은 “3경기 모두 러시아를 겨냥해 (여자)대표팀이 실전을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만 잡으면 상생세를 탈 수 있어 조 1위도 노려볼 수 있다. 더욱이 대표팀의 최대 약점으로 꼽힌 선수층이 얇다. 주전과 비주전의 실력차가 아무래도 큰 편이다. 리우올림픽의 벽찬 일정을 고려할 때, 첫 경기를 잡아야 체력안배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마지막 ‘우생순 세대’인 오영란(44)과 우선희(38)가 대표팀의 중심을 잡는다. 원투펀치인 김은아(28)와 류은희(26)의 몸 상태가 최대 관건인데, 이제 회복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간에 강한 임 감독의 카리스마도 대표팀에는 무형의 전력이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리우 안테나

신태용 감독 “선수단에 기를 주겠다”
한국 선수단 중 가장 먼저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경기를 치르게 된 남자축구 대표팀 신태용 감독이 4일(한국시간)

브라질 사우바도르의 폰치 노바 아레나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리우올림픽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첫 경기를 멋지게 장식해 선수단과 팬들에게 기를 주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은 5일 오전 8시 같은 장소에서 피자를 상대로 조별리그 C조 1차전을 치른다.

여자하키, 일본과 연습경기 2-1 승리
한진수 감독이 이끄는 여자하키대표팀이 4일 리우데자네이루 데오드로 올림피 하키 센터에서 열린 일본과의 연습경기에서 2-1로 이겼다. 아르헨티나에서 사전 적응훈련을 마치고 전날 리우에 입성한 대표팀은 올림픽 개막에 앞

선 마지막 리허설을 무사히 치르고 실전감각과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총 12개국에 출전한 여자하키에서 한국은 뉴질랜드, 네덜란드, 독일, 중국, 스페인과 A조에 편성됐다. 세계랭킹 8위의 한국은 7일 오후 10시 세계랭킹 4위 뉴질랜드와 조별리그 1차전을 벌인다.

그것 참 신통하다!

12歩

불편한 곳에 붙이고
12보만 걸으면 거뜰히!

신통방통 - 걸리고 찌르고 시큰거리는 곳을 신속하고 빠르게~
아하! 이게 바로 소문으로만 들던 바로 그제품이구나!

붙이고 확인하세요
착한 가격에 놀라고 성능에 놀란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과학적 원리입니다!
간편하고 쉽습니다!

KFIA
한국원적외선협회

강력한 원적외선 방출 음압침 부착 패치

▲제품명: 12보 파워침 부착용 패치 1포8매치 / 제조허가제215-21-23933호

정무포상
2016 자랑스런 한국인
솔원한방제약 회장 이근식

상장
유원한방제약 회장 이근식
상기인은 중소기업이 후원한 제14회 대한민국 환경창조경영 대상에 친환경 우수 중소기업 업체로 선정되어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6년 6월 23일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주)솔원한방제약은 전 솔표조선무약의 임직원들이 모여 만든 한방병원, 한의원 전문납품 기업입니다.

(주)솔원한방제약
한방병원, 한의원 전문납품 기업

유시품에 주의하세요!

추천 월남전 참전 전우회원 장정훈

(주)솔원한방제약
한방병원, 한의원 전문납품 기업

구입문의 1600-1043